

무사고 운전의 지름길

방어운전요령(VII)

金 元 夏

〈교통신문·취재부장〉

51. 시가지 주택가 등에서는 보행자 사고방지를 제1의 과제로!

보행자 사고가 비교적 발생하기 쉬운 도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내가 주행하고 있는 도로는 어떠한 환경의 도로인가를 생각하고 주행하는 것이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시가지의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서는 특히 보행자 사고방지를 첫째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52. 주차차량이 많은 도로에서 차로 가려진 곳에는 여자가 있다.

상점가나 노상주차가 많은 도로에서는 그 주차차량으로 가려진 곳에서 횡단해 오는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주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로서 그 1차선만이 정체되어 있을 때나 대향차선이 정체되어 있을 때 늘어서 있는 차 사이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 때문에 언제나 주·정차해 있는 차 사이로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53. 횡단보도에서는 필히 감속태세로 접근할 것.

교차로나 단일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신용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에는 필히 감속태세로 접근해야 한다. 감속태세란 상황에 따라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54.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행자나 자전거를 주의하라.

우회전할 때에는 횡단보행자에 대한 주의가 중요하다. 이 경우 우측이 사각이 되기 쉽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에 정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 또한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나 2륜차를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이드 미러 등으로 자전거나 2륜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고 속도를 줄여 우회전해야 한다.

특히 대형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륜차(內輪差)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55. 앞차가 감속하면 왜 감속하는가 생각해 보라.

앞차가 감속한다든가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이거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추월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앞차가 행동하는 이유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횡단보행자가 앞차의 전방을 건너가고 있다든가 앞차가 정지하면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56. 정차하고 있는 버스의 측방을 통과할 때는 요주의!

정차하고 있는 버스나 화물차 등의 측방을 통과할 때에는 그 앞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를 주의해야 한다. 버스나 화물차의 전차륜 부근에 보행자의 발이 보일 때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고 있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가려진 곳에서 횡단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미리 예상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57.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 우회전할 때에는 특히 우측을 주의할 것.

야간이나 비오는 날 좌우회전할 때에는 횡단보행자에 대한 주의를 특별히 해야 한다. 야간에는 전조등의 조사범위가 좁고 또한 비오는 날은 와이퍼의 닦는 범위가 좁아 시야가 장애를 받게 되어 횡단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된다.

특히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에는 충분히 횡단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58. 뒤에는 눈이 없다. 부주의하게 후진하지 말라.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의외라고 할만큼 많다. 후진할 때에는 운전자의 자세도 부자연스럽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 후진하기 전에 미리 후방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람이 걷는 정도의 속도로 후진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등의 대형차는 후진하기 전에 한번 차에서 내려 주위의 안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59. 혼잡한 곳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말라!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에서는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긴장하기 마련이다. 혼잡한 곳을 빠져나와 비시가지로 주행하게 되면 긴장이 해이되어 속도를 내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대형화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는 대부분 비시가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비시가지라 할지라도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하며 시가지에서와는 다른 주의가 필요하다.

60. 안전속도라 함은 T.P.O(Time, Place, Occasion)에 적응한 속도이다.

안전속도라 함은 일정 불변한 것은 아니다. 첫째 그때 그 장소에 적응한 속도를 말하고, 둘째 운전능력이나 교통의 흐름에 적응한 속도이고, 셋째 법정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다.

커브나 내리막길에서의 원심력이나 관성력을 고려치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는 것이 훌륭한 운전 솜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범운전자라고 할 수 없다. (다음 號에 계속)